# 이 모 저 모

### 심의위원회 개최

본 협회 산하 안정기금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95년 하계수련회 개최

와 황기계약재배건에 관해 논의됐다.

### 「식품…환경국제대회」

지난 7월19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연회실에서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주최로 광복 50주년 기념 「식품·문화·교역과 환경국제대회」가 열렸다.

아시아·태평양지역 22개국에서 1백10명의 유기농업·환경 전문연구자가 참가한 가운데 인류의 건강증진·유기농업 실천기술 등 24개의 폭넓은 연구과제들이 발표 토론됐다.

### 강원도 지부회의

강원지부(지부장 박영임)회의가 지난 13일 춘천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임완수 태백시 사무소장을 새로운 총무로 선출하였으며 하계수련대회 주제 발표자로 김정태 동해시 사무소장을 선정하였다.

또한 홍천군 사무소장(박건훈) 해임 건의안과 현 공석 중인 원주, 홍천, 강릉, 고성등 신임 사무소장을 추천 회세 신장에 기여할 것을 토의하였다.

차기 지부회의는 9월중에 정선군에서 개최키로 결정.

### 경기도 지부회의

지난 13일 경기지부(지부장 김성배) 회의가 부천시 공판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하계수련대회에 전원 참석키로 결의하고 이천에서 집결하여 출발키로 하였다.

안성군 이웅황소장은 생약살리기 일환으로 경기도 내에 자체 약초 식물 연구원 설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협회 목적에 부응하여 각 사무소장들은 약초를 재배 생산 위주로 명실공히 회원수를 늘려 나갈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 국내 약초산지 시찰

일본 야마모토 약품공업주식회사 가세 사장 등 일행 4명은 지난 7월18일 본 협회를 방문하고 국산한약재상설매장을 견학했다. 이들 일행은 국내 생약시황을 알아보고 약초산지 시찰을 위해 제기동과 대구약령시, 금산, 구례 등을 돌아보고 지난 7월22일 출국했다.

# 생약인의소리

## 생산자단체 제외 납득 안 가

지난달 8월1일자 생약보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약관리규정안에 생산자단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민 개개인이 가공해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산자단체는 규격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지어 마을단위로 생약협회 공판장이나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공동출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농산물은 개개판매보다 공동출하함으로서 가격결정에 많은 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를 따로 구분하여 규격품의 가공·판매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관리규정안대로 생산자단체를 제외시킨다면, 「농민도 자체생산·가공한 것도 규격품으로 판매토록 허용」한 유권해석은 그야말로 빚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당국은 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내년부터 시행하게될 규격화 사업이 혼선없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9리 신영호)

## 20PPM 기준치 비현실적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한약재 및 생약제제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지금의 1백PPM에서 20PPM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 자체는 현실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산한약재에 대한 정확한 성분분석이나 중금속함량에 의한 인체위해여부등 정확한 검증 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기준치를 설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기가막힌것은 개정안 자체가 우리 생약농업의 현주소와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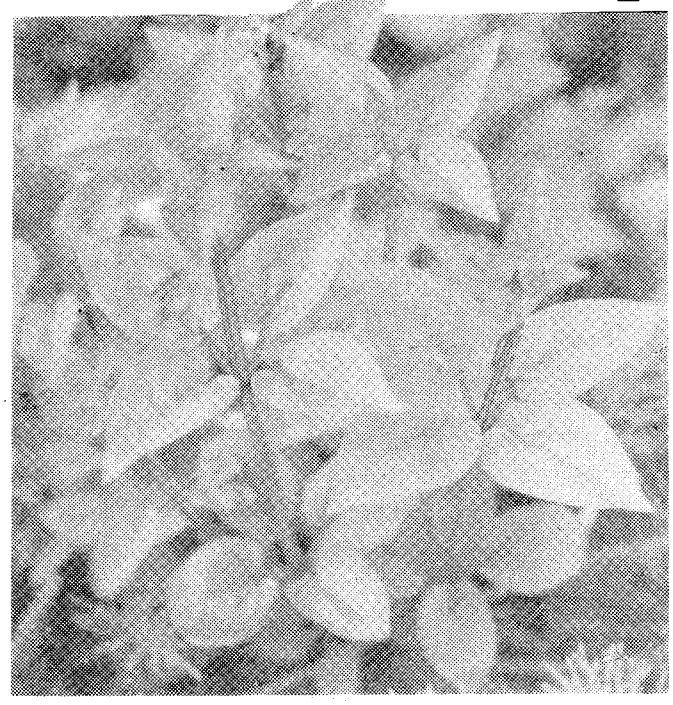
재배기술이 제대로 정립돼 있는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품목고시된 농약조차 없는 실정인데 무엇을 근거로 20PPM이라는 기준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부가 담당하는 영역과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하나의 정부를 둔 한몸인데 어찌 그리 따로 놀 수 있는지요. 이는 부처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는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니겠는지요.

한약재의 중금속기준을 강화한다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농민입장에서는, 재배과정상의 관리법도 함께 제시되는 것이 청정한약재생산을 위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475 위풍관〉

# 손쉬운 민간요법

월경불순



◇ 꼭두선이

## 현호색, 생리통에 현저한 반응
## 익모초, 산후 전신부종에 긴요

### 현호색과 식초

**사용법** 이 약을 잘 씻어서 식초에 담가 두었다가 한 번에 2그램씩 하루 3번 공복에 먹든가 가루로 만들어 한 번에 4그램씩 막걸리에 타서 공복에 마신다.

**효능** 현호색은 비단풀이라고 하여 습기가 있는 낮은 지역에서 많이 자란다. 4월 초에 엷은 남색의 꽃이 핀다. 본래 양귀비과에 속하는 약으로 진통 효과가 두드러지며 생리를 정상으로 유도한다. 특히 생리가 있기 며칠 전부터 복통과 어지럼증이 있고 두통이 심하면서 월경이 고르지 못하고 그 색이 나쁠 때에 사용한다.

실험에서 보면 중추 신경계통에 작용하여 진통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알칼로이드 성분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약은 생리통에 현저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하므로 생리를 정상으로 이끌게 한다.

### 쉽싸리와 익모초

쉽싸리는 산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초본 식물로 약명은 택란이며 부인병 질환에 좋은 치료제이다.

**사용법** 쉽싸리와 익모초를 각각 10그램씩 하여 물 세 사발을 붓고 1시간 정도 끓여서 그 달인 물을 한 번에 마신다. 하루 3번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복용한다.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12그램부터 24그램까지이다.

**효능** 쉽싸리는 생리를 정상으로 유도하는 데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므로 무월경이나 몇 개월에 한 번씩 생리를 갖는 사람에게 우수한 반응을 보이며 월경통에도 유효하다. 이 약은 혈액 순환을 왕성하게 하므로 울체된 혈액이 빠르게 흐르도록 하면서 원기를 돋게 하므로 허약 체질에 좋은 치료제이다.

이 밖에도 타박상으로 인한 내출혈에 내복, 외용하고 산후 전신 부종에도 긴요하게 쓰인다.

익모초는 일반적으로 육모초라고 부른다. 이 약은 자궁에 직접 작용하여 흥분 효과를 나타내므로 자궁 근육의 긴장력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순환기계에 작용하여 혈관 운동을 조절한다. 따라서 생리를 정상적으로 있게 하며 생리통, 산후 자궁 수축 작용, 월경 폐지증 등에 유효한 반응을 얻게 한다. 익모초가 불일증에 쓰인다는 것도 생리 불순인 사람이 이 약을 상복하여 정상 월경을 갖게 되므로 임신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꼭두선이 뿌리

이 약은 전국 각지에서 널리 자라는 여러해살이 초본 식물로 약명은 천경 또는 천근이라 하며 줄기와 뿌리를 모두 약용한다.

**사용법** 맛은 쓰고 약성은 찬데 체내에 들어가서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월경 폐지증과 예정일보다 항상 늦게 하는 사람에게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타박상으로 인한 내출혈과 부종증에도 활용된다. 지혈시키고자 할 때에는 까맣게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쓰는데 이것은 혈관을 수출시키면서 지혈 작용을 하므로 코피나 소변 때 출혈, 대변 때 출혈증 등에 모두 응용된다.